

진리인 동양 윤리 사상과 달리 기독교 진리의 완전성과 우수성을 깨닫게 하여 교과 공부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경향이 있도록 의도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도안의 구성은 유교, 불교, 도가 및 도교 사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교·분석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 중 '동양 윤리 사상' 단원에 대한 세계관 분석에 그쳤으나 앞으로 한국 윤리 및 서양 윤리, 사회사상 단원 등에 대해서도 세계관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기독교 학생들이 다양한 사상들을 성경적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지켜가고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선포하는 일들이 공교육 및 기독교학교 수업 현장에서 가득 가득 일어나길 소원해 본다. 결국에는 학문과 신앙, 신앙과 삶의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져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확산되는 일들을 기대해 본다.

대학원/교육1/05/발표논문/

## 공교육에서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김계우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록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며 이야기의 범위에 따라서 개인의 간단한 이야기,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의 좀 더 복잡하고 범위가 큰 이야기, 단군신화와 같이 한 민족이나 국가가 공유하는 거대한 이야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이야기 즉, 메타내러티브로 구분할 수 있다. 메타내러티브는 이 세상의 참된 실재에 관해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는 진리 주장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삶 전체를 헌신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메타내러티브에는 크게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이야기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이야기가 있다. 이 두 이야기는 스스로 세상의 참된 실재에 관해 말해주는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야기는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고 세계관은 삶을 형성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에 속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은 철저한 인본주의자였던 듀이의 영향으로 형성된 미국의 인본주의 교육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은 종교의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종교라 할 수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진리 곧,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과 그 이성을 통해 발견한 과학적 사실만을 유일한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교과서의 지면도 진화론과 샤머니즘, 유, 불, 도의 이야기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교육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 이야기와 세계관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본주의 이야기가 지배하고 있는 공교육의 학생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려주어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인본주의 이야기와 세계관이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메타내러티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되고 나아가 성경의 회심케 하시는 역사를 매개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원을 개발하고 적용했다. 또한 학생들의 세계관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용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를 개발하고 설문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수업 후 과제로 이야기 다시 쓰기 및 수업 소감문을 쓰도록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한 후 결론을 내렸다.

주제어: 공교육, 성경 이야기,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교육단원개발, 초등학교 고학년용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

### I. 서론

우리는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나 들으면서 하루를 살고 한평생을 살아간다. 그 결과 자기보다 앞서 살다간 사람들의 삶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삶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진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역사는 이야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처럼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등장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였다. 그 후 성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도 이야기를 하고 듣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범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들의 간단한 이야기에서부터 가족이나 마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좀 더 복잡하고 범위가 큰 이야기도 있으며, 단군신화와 같이 한 민족이나 국가가 함께 공유하는 거대한 이야기도 있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을 '메타내러티브'라고 부른다. 메타내러티브는 이 세상의 참된 실체에 관해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는 진리 주장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삶 전체를 헌신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Goheen & Bartholomew, 2008: 50).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메타내러티브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이야기이다. 뉴비긴의 말대로 성경 이야기와 인본주의 이야기는 모두 스스로 이 세상의 참된 실체에 관해 말해주는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과 충돌이 불가피하다(Newbiggin, 1989: 42).

이야기는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 할 수 있는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다. 인본주의 이야기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 이야기는 기독교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계관은 인간의 삶을 형성시키는 힘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세계관에 의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이다. 결국 이야기는 특정한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고, 세계관은 인간의 삶을 형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이야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한 이야기와 세계관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화의 중요한 한 요소인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근대 공교육을 형성시킨 이야기와 세계관은 인본주의 이야기와 모더니즘 세계관이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대표적인 모더니스트인 존 듀이(John Dewey)가 미국 공교육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그런데 듀이의 인본주의 교육철학에 크게 영향을 받은 미국의 공교육 제도가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교육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교육도 인본주의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공교육을 통해 인본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갖게 되고 특히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는 학생일수록 더욱 더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인본주의 이야기와 세계관이 지배적인 공교육 현장에서 뜻 있는 기독교사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기 위해 분투해 왔다. 지금까지 기독교사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나니아 연대기'와 같이 성경적 메타포가 담긴 문학작품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석한 후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해 가르치는 것이었다. 기독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라고 여기는 성경을 수업시간에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이유는 성경을 기독교인들만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진리일 뿐 공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인본주의 세계관이 반영된 교육기본법의 종교 중립성에 대한 규정 때문이었다.<sup>332)</sup>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특정한 종교를 위한 교육을 제한한다고 하는 공교육이 실제로는 종교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인본주의 이야기와 세계관을 교육과정을 통하여 유일한 진리로 가르쳐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과정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은 철저하게 자율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발견한 과학적 사실만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하고 객관적인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돈실과 박니란의 연구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무속, 불교, 유교, 도교 및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이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진화론과 샤머니즘, 유교, 불교, 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이돈실, 2010: 142-144; 박니란, 2009: 49).

이에 반해 성경 이야기나 창조론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공교육의 학생들은 인본주의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간을 가장 진화된 고등 포유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이처럼 모더니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공교육에 근래에 들어와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영향이 미치지 시작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긴 하겠지만 이 또한 모더니즘과 같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인본주의 이야기 일색인 공교육에 성경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성경을 수업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야기의 형식으로 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세간에 받아 들여 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 텍스트로 채택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한 교육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다. 또한 성경을 이야기 텍스트로 삼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주제 파악하기,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쓰기, 구성 요소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 이해하기,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 쓰기 등의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국어교사용지도서, 2010: 20-23).

그러므로 공교육의 수업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지금까지 인본주의 이야기밖에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는 다른 메타내러티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일이 된다. 또한 성경 이야기는 인본주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이 세상의 실체에 관해 설명하는 유일한 메타내러티브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통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나아가 성령의 회심케 하시는 역사를 매개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 준다고 했다.<sup>333)</sup> 그러므로 공교육의 학생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은 인본주의 이야기가 주장하는 이 세상의 본질과 모습이 거짓임을 폭로하고, 학생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부터 해방시키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공립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세계관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 II. 이야기와 세계관의 이해

### 1. 이야기의 이해

#### (1) 이야기의 중요성

사람은 얼마 뱃속에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도 줄곧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야기는 사람의 삶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야기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이야기적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야기는 각광을 받고 있다고 양금희는 지적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교육학, 신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이야기는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객관주의, 주객분리 도식, 합리적 사고, 좌뇌 중심적 사고 등에 대한 비판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상상력, 감정, 친인적 사고와 같은 차원들에 눈을 돌리고, 보다 인격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양금희, 2010: 13). 즉, 이야기의 강조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야기적 존재라는 사실과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야기를 학문하는 방법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야기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편임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 방식이기도 하다. 피터슨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제일 중요한 말의 수단이라고 했다(Peterson, 2006: 80). 왜냐하면 이야기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말의 형식이고 모든 세대의 사람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Peterson, 2006: 81).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대부분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기록

332) 교육기본법 제1장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조 개정 2007. 12. 21)

33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4장 15-17절).

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인간이 본래 이야기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의 형식으로 된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은 이야기의 중요성을 말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루게 될 기독교 세계관과 이야기의 상관성을 더욱 일깨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이야기의 특징과 기능

양금희는 이야기가 명제적인 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고 구체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야기의 특징과 기능을 아홉 가지로 제시 했다(양금희, 2010: 16-22).

첫째, 이야기는 재미를 준다. 이야기는 풀쫂을 따라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며, 결말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듣는 사람에게 흥미와 재미를 준다.

둘째, 이야기는 감동을 준다. 이야기는 단순히 지적 차원의 앎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고,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밀고 들어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야기는 '동일시'를 불러일으킨다. 모든 이야기에는 인간 공통의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슬픔과 좌절, 승리와 모험, 사랑과 미움 등의 인간 실존을 결정하는 기본적 경험들이 들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나 상황 사건과 동일시하게 한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 동일시를 통해 인간 공통의 경험을 배우거나 자신의 삶을 확장하게 된다.

넷째, 이야기는 실천적 만남을 불러일으킨다. 듣는 이들은 이야기 속의 사건에 실제로 동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일부를 이야기 속에서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이야기는 전인적 학습을 불러일으킨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사건을 전인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야기는 경험적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경험적 지식을 매개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숙고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창조하고, 더 나아가 행동하게 만든다.

여섯째, 이야기는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야기는 그것과 실존적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단순히 지적 깨달음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을 움직여 실제적인 결단을 하고 행동 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일곱째, 이야기는 치유와 해방과 변형을 가져온다. 현대 심리학은 '이야기치료'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를 치유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마음이 새롭게 변형되며 치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덟째, 이야기는 연대감을 가져온다. 공동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연대감을 가지게 된다. 공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다른 사람,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와 연계된다.

아홉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신비함을 체험케 한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실제적으로 한다. 또한 자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이현정에 따르면 이야기는 기억을 증진시키고, 상상력을 높여주며, 의미를 형성케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이현정, 2003: 27-35). 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바탕을 제공해 준다. 인간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그래서 월터스와 고헌은 근래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나의 궁극적인 세계관적 범주로 보는 관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Walters & Goheen, 1985: 190).

이상에서 살펴 본 이야기의 중요성과 특징 및 기능은 본질적으로 이야기적 존재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들려주는 방식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야기는 모종의 세계관을 형성시키고 그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형태를 빚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이제 이야기를 통해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빚어내는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2. 세계관의 이해

## (1) 세계관의 개념

세계관이란 용어는 계몽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 사용했다. 그 후 이 용어는 널리 확산되어 철학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노골은 이 용어가 19세기 말엽에는 학문적 명사의 자리에 오를 만큼 널리 사용되었다고 말했다(Naugle, 2002: 55).

세계관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세속 철학자들이었지만 19세기 말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서구의 기독교 사상가들은 세속 철학자들의 세계관 개념을 이용해 기독교의 복음을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표현하고자 했다. 세계관 개념을 기독교에 원용한 사상가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제임스 오로와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도어베르트 등이 있다. 또한 이들의 세계관 개념을 계승하여 널리 알리고 발전시킨 이들은 알버트 월터스와 제임스 사이어, 리처드 미들튼과 브라이언 왈쉬, 마이클 고헌과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등이 있다.

월터스에 따르면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Walters, 1985: 25). 또한 왈쉬와 미들튼은 세계관을 '인식의 틀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Walsh & Middleton, 1984: 18). 사이어의 경우에는 세계관을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이라고 했다(Sire, 1988: 20). 이렇게 학자마다 다양한 경의를 내리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최용준은 다양한 세계관의 정의가 의미하는 공통적인 바는 결국 세계관과 삶이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최용준, 2008: 26).

## (2) 세계관의 본질과 기능

세계관은 삶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삶을 형성시키는 힘을 가졌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세계관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세계관이 가지는 본질과 특징에 대해서 전광식은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전광식, 1998: 37-39).

첫째, 세계관은 전이론적이며 선과확적이다. 개별 실재를 다루는 개별 학문보다 전실재를 취급하는 철학이 더 근본적인 것이고 본다면, 이론적 학문인 철학보다 전이론적인 세계관이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세계관은 전실재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조망이다. 세계관은 신관,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 역사관, 내세관을 수렴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정관, 교육관, 경제관, 정치관, 예술관, 문화관 등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어 단지 현실적인 실체개념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현실 저 너머의 영계와 내세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 셋째, 세계관은 하나의 직관적, 신념적 구성물이다. 세계관은 철학적, 심리적,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인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세계관을 하나의 신념 체계로 고백한다. 넷째, 세계관은 모든 실재계를 보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선형적이며 주관적인 틀이다. 세계관은 마치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안경이 대상을 보는 주체이므로 주관적이라는 뜻이고, 안경의 밝기와 색깔에 따라 실재가 보이는 정도나 색이 다르다는 점에서 인간의 모든 시각과 관점에 확고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세계관은 일종의 선입견, 선관단, 전제 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선형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세계관은 우리가 실재를 보고 이해하는 인식론적 원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이끄는 실재적 원리가 된다. 어떤 세계관이든 그것은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삶을 형성시키는 실재적 원리로 작용한다. 여섯째, 세계관은 공동체적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세계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세계관은 개인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공유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이고, 과정상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는 점에서도 공동체적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세계관은 종교적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고 종교는 세계관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 여덟째, 세계관은 문화를 형성한다. 세계관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기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사회의 정신과 삶, 구조와 성격에 영향을 주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만든다.

이런 세계관의 본질로부터 자연스럽게 세계관의 기능이 도출되는데 최용준은 세계관의 중요한 기능을 여섯 가지로 설명했다(최용준, 2008: 28-30). 첫째, 세계관은 세상과 나 자신을 이해하는 해석적 역설을 제공한다. 둘째, 세계관은 현실의 상황과 삶의 경험 가운데서 인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 셋째, 세계관은 삶의 규범적인 틀로서 우리 삶을 그 원칙에 의해 선택하도록 인도하며 특정한 패턴을 따라 행동하게 한다.

넷째, 세계관은 우리의 소명을 자각하도록 일깨우며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끼게 한다. 다섯째, 세계관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온전한 모습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안정감, 만족감, 내적 평안, 기쁨을 제공한다. 여섯째, 세계관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군과 적군, 올바른 세계관과 잘못된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단적 기능을 가진다.

결국 세계관의 본질과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계관은 인간의 삶을 벗어남은 것이다. 모든 세계관은 삶을 형성시키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올바른 세계관에서 올바른 삶이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세계관은 이 세상의 참된 실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참된 실재란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인간 역사와 도덕의 의미, 악의 기원과 해결책, 세상의 끝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것들에 관해 포괄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세계관이야말로 올바른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3. 기독교 세계관

#### (1)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

기독교 세계관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표현되었지만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실재를 하나님이라고 보는 세계관이라면 모두 기독교 세계관이라 말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토대위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구속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을 창조, 타락, 구속의 키워드로 설명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선한 창조가 심각한 손상을 입어 인간과 피조 세계 전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죄의 길이 열리게 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일을 수행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임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이며 이것을 체계화시킨 사상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부르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기독교 세계관 개념을 명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근래에 들어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유행하면서 이야기적 접근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 (2) 기독교 세계관과 이야기의 관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모더니즘이 지배하던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르와 카이퍼가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기독교에 차용한 것은 당시의 문화적 정황 속에서 복음에 반대되는 세계관들의 강력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문화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신빙성 있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구현된 세계관이 실제로 당대의 강력한 세계관들에 맞설 만한 중대한 대안이 됨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Goheen & Bartholomew, 2008: 86). 그런데 근래에 와서 종래의 기독교 세계관이 오늘날의 비기독교적 현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적절한 방법론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모더니즘 시대에 시작된 기독교 세계관 개념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왈시와 미들튼은 과거에 자신들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사안은 물론 내러티브까지 간과했다고 말했다(Walsh & Middleton, 2007: 7). 사이어의 경우에도 세계관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지향이라는 점, 세계관의 밑바닥에는 '참으로 실재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깔려 있다는 점, 자신이나 타인의 세계관이 정말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 세계관은 추상적인 명제들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습득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거 자신의 세계관 정의를 수정했다(Sire, 2007: 12).

이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대정신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의 세계관 논의에서 내러티브의 문제를 간과했었다는 것이다. 세계관을 일련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명제적으로 제시하던 과거의 방식은 포스트모던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서는 채워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는 이 사회가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자각과 성경이 주로 이야기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이야기가 중요한 지식전달의 방법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포스트모던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는 방식도 모더니즘시대의 명제적 방식에서 이야기 방식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이 도출된 성경의 대부분이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의 형식도 이야기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야기의 형식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일 뿐 아니라 성경의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볼트가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야기는 우리를 이성과 논증적 사고를 넘어 인간 경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으로 이끌어 가지만 단지 이야기가 더 우수한 형태의 지식이라고만 볼 수 없고, 서사(내러티브 형식)는 논증적 사고(명제적 형식)를 제거한다는 의미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완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Bolt, 1993: 186). 명제의 형식을 모더니즘 시대에만 국한된 것으로 여겨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오직 이야기의 형식만이 통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실 명제는 내러티브에서 도출된 것이고, 내러티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도 일종의 명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명제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이렇듯 성경도 명제적 진술과 내러티브가 두루 병용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명제와 내러티브는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의 제시 방식이 명제적 방식에 치우쳐 있었고 내러티브 형식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 따라 학자들은 세계관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세계관이란, 이야기의 형태로 혹은 실제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든, 일관적이든 비일관적이든)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전체(부분적으로 옳거나 완전 잘못 된)로 표현되는 것으로써,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Sire, 2007: 173).

사이어는 '이야기의 형태'라는 말과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라는 말을 새롭게 삼입함으로써 진전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세계관의 형식이 이야기 형식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이야기에 대한 강조는 고헌과 바르톨로뮤의 세계관 정의에서도 볼 수 있다.

세계관이란, 공유된 큰 이야기 속에 배어 있는 기본 신념들을 명료화한 것인데, 그 신념들은 신앙의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개인 생활과 공동생활 전체를 빛내이고 방향을 결정한다 (Goheen & Bartholomew, 2011: 77).

고헌과 바르톨로뮤는 세계관이 공유된 큰 이야기에서 도출된 신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 신념을 제시하는 방식도 이야기의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명제적 방법만이 아닌 이야기적 방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야기적 방법을 활용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이야기는 특정한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생활은 물론 사회의 모든 공적인 차원과 국가의 정책까지도 그 세계관에 맞게 벗어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임을 생각할 때 현재 이 세상의 참된 실재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메타내러티브들과 거기에 깔린 근본 신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구 사회를 형성시켰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메타내러티브인 인본주의 이야기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본

주의 이야기에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인본주의 이야기는 스스로 세상의 참된 실재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성경 이야기와 충돌하고 경쟁한다. 그러면 이제 성경 이야기와 충돌하고 경쟁하는 인본주의 이야기와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III. 성경과 경쟁하는 인본주의 이야기

#### 1. 인본주의 이야기

인본주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는 이 세상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먼저 성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고 망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것이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자 역사의 진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인본주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을 앉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와 욕망이 인본주의 이야기의 기본 전체인 셈이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이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로 등장한다. 인본주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율적인 이성과 발전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고서는 이 이야기에 몇 가지 수정이 불가피해서 이야기의 결말이 다소 비극적으로 바뀌긴 했으나 여전히 인간 이성에 대한 자율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수정된 이야기에든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수정된 이야기와 처음의 이야기는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인본주의 이야기도 성경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자신의 자리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이야기와 인본주의 이야기는 서로 상충되고 양립이 불가능하다. 두 이야기 모두 전적인 삶의 현신을 요구하는 메타내러티브이기 때문이다. 오피츠와 멜러비는 성경 이야기와 인본주의 이야기를 잘 비교해 주었는데 그들에 따르면 성경의 창조-타락-구속-완성의 이야기는 인본주의 이야기에서 물질-무지-진보의 모더니즘 세계관으로 바뀌었고, 근대에 와서는 문화-압제-표현의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했다(Opitz & Melleby, 2007: 78-79). 성경 이야기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반면에 인본주의 이야기는 시대정신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있다. 그러나 물질-무지-진보의 도식이 문화-압제-표현의 도식으로 바뀌었을 뿐 인본주의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경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을 통해 인본주의 이야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이 가진 문제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 2. 모더니즘

##### (1) 모더니즘의 본질과 특징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근대주의’라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주후 5세기 후반부터였다. 처음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중세 이후 종교의 규율과 억압에서 인간 이성이 해방되어 이성의 자율성이 꽃피워진 시기를 일컫는다. 모더니즘은 15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에서 발흥하여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치고 17세기 과학혁명에 힘입어 마침내 18세기 계몽주의 때에 절정에 이르렀다. 모더니즘의 극치를 보여준 18세기 계몽주의 세계관은 현재의 서구 사회를 형성시켰는데 고헌과 마르톨로뮤는 계몽주의의 핵심 신념을 진보에 대한 신앙, 이성에 대한 신앙, 과학 기술에 대한 신앙, 세상의 합리적 사회 질서에 대한 신앙으로 요약하면서 18세기에 이르러 서구 사회는 계몽주의라는 새로운 신앙으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Goheen &

Bartholomew, 2008: 203).

그들은 모더니즘의 특징에 관해서도 잘 지적해 주었는데 첫째, 모더니즘은 세속주의적이다. 세속주의는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신념이다. 둘째, 모더니즘은 자연주의적이다. 자연주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신념이다. 셋째, 모더니즘은 합리주의적이다. 이것은 신의 역할을 인간의 이성으로 능히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이다. 넷째, 모더니즘은 과학주의적이다. 이것은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인간 이외의 피조물을 정복할 수 있고, 이성의 힘으로 경제, 정치, 교육, 법률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문화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Goheen & Bartholomew, 2008: 162). 결국 모더니즘은 하나의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성의 능력을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더니즘의 이런 주장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모더니즘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이 모더니즘적 세계관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모더니즘적 세계관에 따라 인간에게 더 이상 신은 필요 없어졌고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요 구원자이며 통치자라고 자처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은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오늘날의 서구 사회와 문화를 형성시켰고, 이것은 또한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모더니즘의 한계와 그에 대한 비판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모더니즘은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위기를 맞고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제 1-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서구인들은 모더니즘의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일종의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한 과학 기술은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의 제조로 이어져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참혹한 전쟁을 불러 왔기 때문이다. 또한 모더니즘은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과 과학 기술의 발달,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빈곤, 환경오염과 파괴, 무기 경쟁, 경제적 불평등 등의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 문제를 더욱 심화, 고조시키고 말았다. 모더니즘의 이런 한계에 대해 신국원은 평가하길 모더니즘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강팍한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고, 인간은 과학과 기술 문화에 의해 더 온전한 인간성을 향유하기보다 오히려 인간성을 박탈당하게 되었으며,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보다 기계의 부속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인간은 날로 합리화되어 가는 사회 제도와 조직에 의해 희생되기도 하면서 마침내 불행해지고 말았다고 했다(신국원, 1999: 67).

모더니즘의 한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과 거부에서부터 나왔다. 그 동안 모더니즘은 인간의 지식이 확실성을 가지며 전적으로 객관적이고 선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이 세상을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모더니즘은 진리에 이르는 방법에 관해서도 자율적인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얻은 것만을 진리라고 인정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런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거부하고 부정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 지식의 확실성과 객관성, 선함에 대해 부정했다.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성 이외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나아가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이는 결국 모더니즘이 지금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던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진 모더니즘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과 이성을 통한 과학 기술의 발달, 그로 인해 생겨난 경제적 부가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는 그 토대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척해서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더니즘의 자존철학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수많은 문제를 배태시키고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다. 또한 스스로 불러 온 병폐로 인해 자기 내부로부터 비판받고 거부되었다. 결국 모더니즘은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세

개관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것이다. 그럼 이제 모더니즘의 한계에서부터 출현하게 된 또 하나의 인본주의 세계관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3. 포스트모더니즘

#### (1)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과 특징

포스트모던이란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신국원은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역사의 연구」에서 서구 역사를 암흑기, 중세기, 모던, 포스트모던의 네시기로 구분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신국원, 1999: 14).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예술과 건축 등에서부터 시작되어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화 전반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현대 문화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되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스트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미 포스트모던적이다. 일례로, 사람들은 점점 옹고 그림의 문제를 좋고 나쁨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포스트모던적 현상으로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신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신봉하는 신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정한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온 세상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전체 위에서 그 보편적 진리를 얻는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보편적인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옹고 그림의 문제가 좋고 나쁨의 개인적 취향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보편적인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결국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고정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기준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주의를 지향한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옹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종류의 메타내러티브를 거부한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공동체에서만 진리로 여겨질 수 있을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더니즘이 들려주던 메타내러티브를 거부할 뿐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메타내러티브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다섯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용주의를 지향한다. 어차피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실용적인가라는 질문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런 주장은 모더니즘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인본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약속한 유토피아의 꿈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주장에 대해 거부하고 부정하는 면이 많지만 절대적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신봉하는 세계관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모더니즘과 같이 인본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거부하지만 모더니즘의 토대인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헌과 바르톨로뮤가 말한 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은 버렸을지 몰라도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인간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Goheen & Bartholomew, 2008: 241).

#### (2)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계와 그에 대한 비판

모더니즘이 가진 한계와 병폐를 지적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또한 불완전한 인본주의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신봉하는 신념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신국원은 여덟 가지로 잘 지적해 주었다(신국원, 1999: 236-247).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이성주의를 비판했지만 절대적 진리를 아는 일에 이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도외시하게 만들었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고 여러 종교가 공존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종교 다원주의를 불러왔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성 자체를 궁극적인 것으로

절대적이고 규범화하는 상대주의를 주장한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은 과거에 절대적 되었던 신과 이성을 모두 부정하게 되면서 힘의 논리로 치닫게 된다. 다섯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존재하는 모든 것, 진리와 사실도 해석될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허무주의로 이끈다. 여섯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삶의 모든 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닌 역사적이고, 사회적 담론의 산물일 뿐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극단적 비결정론인 구성주의를 표방한다. 일곱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삶이 문화적으로 결정되고 생각은 언어로 형성되므로 우리의 개성이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고 결국에 인간은 비본질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여덟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을 본능과 감성이 추가 되는 존재로 보고 이성마저 권력 의지의 시녀로 본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옹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 신과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신봉하는 모더니즘의 인본주의적 자존철학의 토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은 또 하나의 강력한 인본주의 세계관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모더니즘의 인본주의적 이상이 실패한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의 인본주의적 이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배제시킨다고 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뱀의 이야기는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반복되었다. 현대판 뱀의 거짓말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인본주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Newbigin, 1989: 42).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 이야기와 세계관이 특색하는 공교육에서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 실제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 IV.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위 개발 및 적용

### 1.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위 개발

#### (1) 단원의 개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원의 목표는 주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성경이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틀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명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이야기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성경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이해하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수업에 투입할 성경 이야기를 선정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역인 개역개정은 어려운 단어가 많아 초등학교생들에게 부적합하다.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 성경의 경우에는 단순한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성경을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본 연구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이면서 성경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이해하여 쓰인 '스토리 바이블(Lloyd-Jones, 2007)'을 수업에서 읽어 줄 성경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스토리 바이블이 다른 어린이 성경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결과 이야기를 함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풀어나간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의 방식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스토리 바이블은 총 마흔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을 스물 하나의 장으로, 신약은 스물 세 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마흔 네 개의 장중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키워드에 적합한 장들을 주려내어 수업에서 읽어 줄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선택된 장들은 분석하는 과정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나누어진 장들을 하나로 합치기도 했고,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도 하였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단원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단위 목표에 따른 차시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고 6차시의 수업 지도안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단원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평가방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용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를 새롭게 개발하여 수업 전·후에 실시하였다. 또한 6차시 수업 이후에 이야기 다시 쓰기와 수업 소감문 쓰기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를 통해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야기 다시 쓰기와 수업 소

감문 쓰기를 통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2) 단원의 목표

<표 1> 단원의 총괄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경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li> <li>2. 모든 사람은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li> <li>3. 성경 이야기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li> <li>4.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다.</li> </ol>
--

(3) 단원의 내용

<표 2> 단원의 차시별 학습내용 구성

차시	주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학습 자료
1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로 수업 전 설문하기</li> <li>• 세계관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있음을 알기</li> <li>• 이 세상의 처음 모습 상상하여 말하기</li> <li>• 스토리 바이블 창조 이야기 상상하며 듣기</li> <li>• 배경, 사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하기</li> <li>•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성경의 창조 이야기 비교하여 차이점 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지</li> <li>▶ 다양한 색깔의 안경</li> <li>▶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PPT)</li> <li>▶ 읽어 줄 성경의 창조 이야기 텍스트</li> <li>▶ 내용 정리 양식</li> </ul>
2	타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와 신문기사를 통해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의 양상들(거짓, 폭력, 살인, 전쟁, 가난, 기아 등)과 그 결과들(환경오염, 파괴, 고통, 슬픔, 죽음 등)을 살펴보고,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해보기</li> <li>• 스토리 바이블 타락 이야기 상상하며 듣기</li> <li>• 배경, 사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하기</li> <li>•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의 기원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성경의 대답을 비교하여 차이점 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의 양상 제시(PPT)</li> <li>▶ 읽어 줄 타락 이야기 텍스트</li> <li>▶ 내용 정리 양식</li> </ul>
3	구속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리스마스의 의미 알기</li> <li>• 스토리 바이블 구속1 이야기 상상하며 듣기</li> <li>• 배경, 사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하기</li> <li>•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성경의 대답을 비교하여 차이점 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리스마스의 상징들(PPT)</li> <li>▶ 읽어 줄 구속1 이야기 텍스트</li> <li>▶ 내용 정리 양식</li> </ul>
4	구속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십자가 형벌 알기</li> <li>• 스토리 바이블 구속2 이야기 상상하며 듣기</li> <li>• 배경, 사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하기</li> <li>•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성경의 대답을 비교하여 차이점 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십자가 형벌(PPT)</li> <li>▶ 읽어 줄 구속2 이야기 텍스트</li> <li>▶ 내용 정리 양식</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활절 계란 나누기의 의미 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활절 계란</li> </ul>

	구속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리 바이블 구속3 이야기 상상하며 듣기</li> <li>• 배경, 사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하기</li> <li>•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성경의 대답을 비교하여 차이점 알기</li> </ul>	(PPT) ▶ 읽어 줄 구속3 이야기 텍스트 ▶ 내용 정리 양식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상상하여 말하기</li> <li>• 스토리 바이블 완성 이야기 상상하며 듣기</li> <li>• 배경, 사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하기</li> <li>•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성경의 대답을 비교하여 차이점 알기</li> <li>•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로 수업 후 설문하기</li> <li>• 과제 제시하기 - 이야기 다시 쓰기 및 수업 소감문</li> </ul>	▶ 읽어 줄 완성 이야기 텍스트 ▶ 내용 정리 양식 ▶ 설문지 ▶ 이야기 다시 쓰기 및 수업 소감문 양식

(4) 단원의 평가

평가는 1차시와 마지막 6차시에 실시하는 수업 전·후 설문지와 과제로 제시하는 다시 쓰기 및 수업 소감문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수업 후 설문지는 1차시에 실시한 것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 전과 후에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과제로 제시되는 다시 쓰기는 지금까지 학습한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배경, 사건, 등장인물을 포함시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다시 써보는 활동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수업 소감문 쓰기를 통해서 전제적인 수업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것 등을 확인하여 수업을 통한 세계관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며 나아가 추후 지도를 위한 정보도 획득한다. 이상의 평가 내용을 총괄 목표와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평가 계획

단원의 총괄 목표	설문지	다시 쓰기 및 수업 소감문
1. 성경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
2. 모든 사람은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3.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	○
4.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태도를 갖는다.		○

2.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위 적용

수업은 2012년 10월에 두 주간에 걸쳐 6차시로 진행되었다. 모든 수업은 가장 정신이 맑고 마음이 차분한 시간인 1차시로 계획했다. 매일 1시간씩 연속 6일간 진행된 것은 성경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차시는 창조를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를 통해 수업 전 인식 실태를 파악했다. 2차시는 타락을 주제로 했으며 3차시에서 5차시까지의 구속의 주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수업했으며, 마지막 6차시에는 완성을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수업 일정과 주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수업 일정

차시	일시	주제
1	10월 15일 월요일 1교시	창조
2	10월 16일 화요일 1교시	타락
3	10월 17일 수요일 1교시	구속1(예수님의 탄생)
4	10월 18일 목요일 1교시	구속2(고난과 십자가 죽음)
5	10월 19일 금요일 1교시	구속3(부활과 승천)
6	10월 22일 월요일 1교시	완성

3. 결과 분석

(1) 대상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원을 적용할 대상은 공립초등학교인 포항 S 초등학교 4학년 32명의 학생들이다. 이들은 남자 17명, 여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인이 7명, 천주교인이 2명, 여호와의 증인이 2명, 불교인이 14명, 무교가 7명이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종교별 남 · 여 학생 수

종교	남	여
개신교	1명	6명
천주교	.	2명
불교	8명	6명
여호와의 증인	1명	1명
무교	7명	.
계	17명	15명
전체	32명	

(2) 초등학교 고학년용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 개발

<표 6> 초등학교 고학년용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 문항 구성

기독교 세계관	세부 내용	문항 수
창조	은 우주와 지구의 창조 각 종류대로의 창조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된 인간 창세기로서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인류 번성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창조된 세계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	8문항
타락	악이 존재하는 세상 악의 기원과 인간의 죄 죄의 결과 죽음 이후의 심판	8문항

	천국과 지옥 인간의 노력과 선행의 한계 지옥의 실제 천 피조계에 미친 죄의 영향력	
구속	대속의 필요성 대속적 죽음과 사랑 구원자 예수님 믿음과 구원의 관계 부활과 승천 및 재림과 심판	5문항
완성	재림과 천국의 도래 천국의 특징 천국에서의 삶	3문항

<표 7> 초등학교 고학년용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

질문 내용	아니 다	모르 겠다	그렇 다
1.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2. 신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고 모든 종류의 동·식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해서 그 곳에 살게 했다.			
3. 신은 인간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했다.			
4. 신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법과 능력을 주었다.			
5. 처음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온 인류가 번성해 나갔다.			
6. 신은 인간을 사랑했고 인간도 신을 사랑했다.			
7. 창조된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8.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9. 이 세상에는 거짓, 교만, 욕심 등의 악이 존재한다.			
10.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인간의 죄 때문이다.			
11.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죽는다.			
12. 인간은 죽고 나서 자기 죄에 대해 신에게 심판을 받는다.			
13. 심판의 결과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			
14.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15.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절망적이고 무시무시한 곳이다.			
16. 인간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동·식물을 괴롭히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며 오염시켰다.			
17. 인간의 죄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없어진다.			
18. 신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19. 인간 대신 죽은 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다.			
20.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져 천국에 들어간다.			
21.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인간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22. 예수님이 다시 오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다.			
23. 천국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눈물, 슬픔이나 죽음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24.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	--	--	--

(3) 수업 전·후 설문 결과 분석

① 창조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와 관련된 수업 전·후 설문 응답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8> 창조

N(%)

문항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전	후	전	후	전	후
1. 온 우주와 지구의 창조	9 (28.12)	7 (22.58)	14 (43.75)	14 (45.16)	9 (28.12)	10 (32.25)
2. 각 종류대로의 창조	9 (28.12)	5 (16.12)	12 (37.5)	9 (29.03)	11 (34.37)	17 (54.83)
3.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된 인간	8 (25)	5 (16.12)	10 (31.25)	9 (29.03)	14 (43.75)	17 (54.83)
4. 창지기로서의 인간	8 (25)	6 (19.35)	14 (43.75)	12 (38.7)	10 (31.25)	13 (41.93)
5. 아담과 화를 통한 인류 번성	6 (18.75)	5 (16.12)	9 (28.12)	12 (38.7)	17 (53.12)	14 (45.16)
6.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9 (28.12)	2 (6.45)	12 (37.5)	15 (48.38)	11 (34.37)	14 (45.16)
7. 창조된 세계의 모습	8 (25)	5 (16.12)	7 (21.87)	11 (35.48)	17 (53.12)	15 (48.38)
8. 창조주 하나님	6 (18.75)	4 (12.9)	16 (50)	17 (54.83)	10 (31.25)	10 (32.25)

온 우주와 지구의 창조를 묻는 질문에서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수업 전 설문에서는 '그렇다(28.12%)'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32.25%)'로 높아졌다. 각 종류대로의 창조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34.37%)'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54.83%)'로 높아졌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43.7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54.83%)'로 높아졌다. 인간은 창지기로 존재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31.2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41.93%)'로 높아졌다. 온 인류는 아담과 화를 통해 번성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53.12%)'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54.16%)'로 낮아졌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관계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34.37%)'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45.16%)'로 높아졌다. 창조된 세계의 모습이 아름답고 평화로웠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53.12%)'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48.38%)'로 낮아졌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인신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31.2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31.25%)'로 높아졌다.

② 타락

기독교 세계관의 타락과 관련된 수업 전·후 설문 응답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9> 타락

N(%)

문항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	-----	------	-----

	전	후	전	후	전	후
9. 악이 존재하는 세상	6 (18.75)	2 (6.45)	4 (12.5)	3 (9.67)	22 (68.75)	26 (83.87)
10. 악의 기원과 인간의 죄	5 (15.62)	6 (19.35)	11 (34.37)	13 (41.93)	16 (50)	12 (38.7)
11. 죄의 결과	8 (25)	4 (12.9)	6 (18.75)	5 (16.12)	18 (56.25)	22 (70.96)
12. 죽음 이후의 심판	8 (25)	4 (12.9)	17 (53.12)	16 (51.61)	7 (21.87)	11 (35.48)
13. 천국과 지옥	8 (25)	6 (19.35)	15 (46.87)	11 (35.48)	9 (28.12)	14 (45.16)
14. 인간의 노력과 선행의 한계	4 (12.5)	6 (19.35)	12 (37.5)	9 (29.03)	16 (50)	16 (51.61)
15. 지옥의 실제	4 (12.5)	2 (6.45)	9 (28.12)	14 (45.16)	19 (59.37)	15 (48.38)
16. 전 피조계에 미친 죄의 영향력	6 (18.75)	2 (6.45)	6 (18.75)	12 (38.7)	20 (62.5)	17 (54.83)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68.75%)'였는데 수업 설문에서는 '그렇다(83.78%)'로 높아졌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50%)'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38.7%)'로 낮아졌다. 죽음은 죄의 결과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56.2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70.96%)'로 높아졌다. 죽음 이후 자기 죄에 따라 심판을 받느냐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21.87%)'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35.48%)'로 높아졌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28.12%)'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45.16%)'로 높아졌다. 죄는 인간 노력과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50%)'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51.61%)'로 높아졌다. 지옥이 실제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59.37%)'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48.38%)'로 낮아졌다. 인간의 욕심이 동식물과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켰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62.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54.83%)'로 낮아졌다.

③ 구속

기독교 세계관의 구속과 관련된 수업 전·후 설문 응답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10> 구속

N(%)

문항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전	후	전	후	전	후
17. 대속의 필요성	21 (65.62)	16 (51.61)	10 (31.25)	14 (45.16)	1 (3.12)	1 (3.22)
18. 대속적 죽음과 사랑	8 (25)	5 (16.12)	19 (59.37)	14 (45.16)	4 (12.5)	12 (38.7)
19. 구원자 예수님	6 (18.75)	6 (19.35)	16 (50)	11 (35.48)	10 (31.25)	14 (45.16)
20. 믿음과 구원의	18	2	9	21	4	7

관계	(56.25)	(6.45)	(28.12)	(67.74)	(12.5)	(22.58)
21. 부활과 승천 및 재림과 심판	6 (18.75)	7 (22.58)	20 (62.5)	15 (48.38)	6 (18.75)	9 (29.03)

죽음을 통한 대속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3.12%)'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3.22%)'로 높아졌다.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대신 죽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12.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38.7%)'로 높아졌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신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31.2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45.16%)'로 높아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12.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22.58%)'로 높아졌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18.7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29.03%)'로 높아졌다.

#### ④ 완성

기독교 세계관의 완성과 관련된 수업 전·후 설문 응답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11> 완성

문항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전	후	전	후	전	후
22. 재림과 천국의 도래	9 (28.12)	5 (16.12)	17 (53.12)	13 (41.93)	6 (18.75)	13 (41.93)
23. 천국의 특징	6 (18.75)	6 (19.35)	14 (43.75)	16 (51.61)	12 (37.5)	9 (29.03)
24. 천국에서의 삶	6 (18.75)	6 (19.35)	16 (50)	17 (54.83)	10 (31.25)	8 (25.8)

N(%)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국이 도래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18.7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41.93%)'로 높아졌다. 천국에는 더 이상 고통, 눈물, 슬픔, 죽음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37.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29.03%)'로 낮아졌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31.25%)'였는데 수업 후 설문에서는 '그렇다(25.8%)'로 낮아졌다.

#### (4) 이야기 다시 쓰기 및 수업 소감문 분석

##### ① 이야기 다시 쓰기

<표 12> 이야기 다시 쓰기 결과

내용	인원 수(%)
4가지 모두 포함 (창조, 타락, 구속, 완성)	21(70)
3가지 포함 (창조, 타락, 구속)	8(26.66)
2가지 포함	•
1가지 포함(구속)	1(3.33)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4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 이야기를 쓴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70%였고 창조, 타락, 구속의 3가지 내용을 포함시켜 쓴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26.66%였으며 구속 1가지 내용만을 포함시켜 쓴 학생의 비율은 3.33%였다. 이 중에서 특히 창조, 타락, 구속의 3가지 내용을 포함시켜 쓴 학생들은

모두 하나같이 '완성'부분을 명확하게 쓰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 ② 수업 소감문

<표 13> 수업 소감문 결과

질문	대답	
인지적	지식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당을 다녀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았다.</li> <li>-내 생각과 성경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li> <li>-성경에 대해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되었다.</li> <li>-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더 높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잘못 알고 있어서 부끄러웠다.</li> <li>-내가 모르는 성경을 알게 되어 좋은 공부가 되었다.</li> <li>-글쓰기를 하니가 좋다고 생각했다.</li> <li>-공부는 why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li> <li>-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읽는 것인 줄 알았는데 불교를 믿어도 읽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li> </ul>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죽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종교는 종교다. 나는 불교라서 웬지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지만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았다.</li> <li>-나는 불교라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지 궁금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특별하다고 여겨지고 선생님과 좀 더 오래 있고 싶다.</li> <li>-대부분 나의 생각과 비슷하지만 나는 예수가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에 박혀 죽었다고 생각한다. 다 함께 토의하니까 더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도 쪽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li> </ul>
변화된 생각이나 느낀 점	단순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미있었다.(4명)</li> <li>-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li> <li>-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몰랐는데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되어 선생님이 고맙게 느껴졌다.</li> <li>-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려웠다.</li> <li>-이야기를 간추려 적는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 만족스럽다.</li> <li>-예수님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생님께 고맙다.</li> <li>-하나님이 말만하면 나오는 것이 신기했다.</li> <li>-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li> <li>-선생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li> <li>-나는 불교라 성경에 대해 몰랐고 안 들어려고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너무 재미있었고 성경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li> </ul>

		-처음엔 이런 공부를 왜 하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결단	-나는 불교지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신은 없고 지옥과 천국도 없으며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새 롭 게 알 게 된 점	창조	-세상이 어떻게 생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고 돌아가셨는지 알게 되었다.(3명)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해 알게 되었다.(2명)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타락	-사탄의 꾀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속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깜짝 놀랐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신기했다. -크리스마스나 산타의 날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았다. -예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큰 상자 안에서 부활한 줄 알았는데 무덤 안에서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십자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2명) -십자가가 유령을 죽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완성	-자연재해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명) -나에겐 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었다.
더 알 고 싶 은 점	창조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3명)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도 알고 싶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타락	•
	구속	-신비한 일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2명) -예수님이 하늘로 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다.

완성	-요한이 쓴 책의 제목을 알고 싶다. -언제 예수님이 데리러 오는지 궁금하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고 싶다.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는지 더 알고 싶다.
기타	-성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4명)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알아 외우고 싶다. -예수님과 하나님, 지옥과 천국의 증거가 있는지 알고 싶다.

변화된 생각이나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수는 인지적 측면 열한 개와 정서적 측면 열세 개로 모두 스물네 개였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지식 획득이 여덟 개, 분석 평가가 세 개였으며 정서적 측면은 단순 반응에서 열한 개, 결단에서 두 개였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창조에 세 개, 타락에 한 개, 구속에 일곱 개, 완성에 두 개, 기타에 한 개의 응답이 있어 모두 열 네 개였다. 더 알고 싶은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창조에 세 개, 타락은 없었고, 구속에 세 개, 완성에 네 개, 기타에 세 개의 응답이 있어 총 열 세 개였다. 과제를 제출한 학생의 수는 30명이었지만 응답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같은 내용을 응답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 V. 결론

###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립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원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용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를 개발하고 수업 전·후에 설문을 실시했으며 수업 후 과제로 이야기 다시 쓰기와 수업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설문지와 이야기 다시 쓰기 및 수업 소감문 결과를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함의들을 찾아보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인본주의 세계관이 지배적인 공교육에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이 된다. 교육의 종교적 가치중립성이라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전달하기에 이야기적 접근은 아주 용이한 방법이다. 또한 이미 인본주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하기에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접근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공교육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내러티브가 분명하게 제시된 이야기를 사용해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 성경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토리 바이블은 성경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이해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맞았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완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천국에 대한 상상과 동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설문과 이야기 다시 쓰기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구성해 놓은 좋은 책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직접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학생들의 세계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업 전·후 실시한 설문을 분석해 본 결과 총 24문항 중에서 17문항에서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70.83%의 문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말이다. 창조와 관련된 문항 중 75%에서, 타락과 관련된 문항 중 62.5%에서, 구속과 관련된 문항 중 100%에서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결과는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공교육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됨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성과 관련된 문항 중에서는 33.3%의 문항에서만 응답 비율이 높아졌으므로 완성에 관한

이야기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야기 다시 쓰기의 결과에서도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효과와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다시 쓴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70%였다. 여기서 완성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내용을 포함시켜서 쓴 26.6%의 학생들을 더하면 총 96.6%의 학생이 적어도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기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기독교 세계관을 인지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있어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여기서도 안타까운 점은 완성 부분을 제대로 쓰지 못한 학생이 여덟 명이나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설문 결과 분석에서의 마찬가지로 완성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다섯째,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가치는 수업 소감문 결과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수업을 통해 변화된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정의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단하는 학생이 두 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을 인지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으로 한정했던 본 연구의 목적을 훨씬 넘어서는 놀라운 결과였다. 또한 학습 능력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보편성과 적절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후속 교육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은 수업 소감문을 통해 자신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교사는 그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더 자세히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고 또 다시 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복음 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과정을 다루다가 성경 이야기에서 보여준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되는 내용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가 주도적으로 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성경 이야기가 이미 학급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2. 제언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공립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4학년 3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제한점이 있어 성급하게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또한 새로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사하지 못했다는 제한점도 있다.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 생각들을 제언하는 것으로 연구를 끝맺고자 한다. 이 제언이 후속 연구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첫째,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소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선행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평소에는 전혀 책을 읽어주지 않다가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읽어 준다면 학생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평소 교사가 꾸준히 책을 읽어 주다가 어느 날 성경 이야기를 읽어 준다면 학생들은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둘째, 성경 이야기를 읽어 줄 때 입체적인 낭독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화의 장면에서는 인물에 따라 목소리를 달리하고, 사건과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톤과 음색을 달리해야 한다. 학생들은 무미건조하게 읽어 주는 이야기보다는 실감나게 읽어 주는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고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여 다시 자신의 언어로 써 내기 위해서는 기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들은 이야기는 훨씬 더 기억을 떠올리게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더욱 다양한 학년과 연령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5, 6학년에 대한 보충연구와 저학년에도 대한 연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상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비신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단원을 개발해 보았으므로 이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신자들 위해 개발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은 몇 가지 있었지만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은 개발되지 않았다.

다섯째, 다양한 대상과 연령에 맞게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순서로 제시하기 때문에 설문지를 구성 할 때에도 내러티브적이고 순차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기독교 세계관 설문지를 개발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중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의 수를 비슷한 비율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에서 8개, 타락에서 8개, 구속에서 5개, 완성에서 3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는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구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효력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언급하지 못한 점과 예수님의 구속이 인간 영혼만이 아니라 피조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광범위한 것임을 지적하지 못한 점이었다. 또한 문항 수를 비슷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각 영역이 그 중요성에 있어 결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각 차시별 수업 지도안 작성 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이야기관련 수업 모형을 활용하거나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수업 모형인 도입-전개-정리의 모형을 사용했는데 이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만약 6차시가 아니라 10차시 이상의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미 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국어과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과학 등의 다른 교과와의 교과통합 수업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지적 영역 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과 의의적 영역까지 수업 목표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친인적인 학습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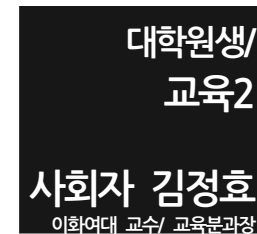
여덟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집단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단의 수업 전과 후의 변화만을 비교하는 것으로 연구 방법을 설계했는데 좀 더 신뢰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홉째, 기독교 세계관 인식 설문지를 5점 척도 이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5점 척도를 어려워 할 것이라 여겨 3점 척도를 사용했는데 연구를 진행하고 보니 5점 척도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5점 척도 이상으로 구성해야 문항에 대한 응답의 상관관계 분석도 가능해서 연구 결과 분석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더욱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곽리란 (2009). “초등 국어교과서 내용에 대한 세계관적 분석과 평가.”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2010). 『4-2 국어교사용지도서』.
- 신국원 (1999).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 양금희 (2010). 『이야기·예술·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이돈실 (2010). “한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이현정 (2004).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진광식 (1998).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 정희영·권태경 (2012).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세계관 실태와 세례 유·무와 신앙 경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앙과 학문』, 제 17권 제 1호, 217-248.
- 최용준 (2008). 『세계관은 삶이다』. 서울: CUP.
- 하회승 (2010). “개혁 교회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과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Bartholomew, G. Craig. & Goheen, W. Michael. (2004). *The Drama of Scripture*. 김명희 역. (2009). 『성경은 드라마다』. 서울: IVP.
- \_\_\_\_\_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윤종석 역. (2011). 『세계관은 이야기다』. 서울: IVP.
- Bolt, John. (1993). *The Christian Story and the Christian School*. 이정순 역. (2006). 『이야기가 있는 학교』. 서울: IVP.
- Lloyd-Jones, Sally (2007). *the Jesus Storybook Bible*. 윤종석 역. (2008). 『스토리 바이블』. 서울: 두란노키즈.
- Naugle, David (2002). *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 Grand Rapids: Eerdmans.
- Newbigin, Lesslie. (1986).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홍병룡 역. (2005).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서울: IVP.
- \_\_\_\_\_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1998).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 \_\_\_\_\_ (1996). *Truth and Authority in Modernity*. 김기현 역. (2005). 『포스트모던 시대의 진리』. 서울: IVP.
- Opitz, Donald & Melleby, Derek. (2007). *The Outrageous Idea of Academic Faithfulness*. 이지혜 역. (2010).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 Peterson, H. Eugene. (2006). *Eat This Book*. 양혜원 역. (2011). 『이 책을 먹으라』. 서울: IVP.
- Sire, W. James. (1988).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199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 \_\_\_\_\_ (2004). *Naming the Elephant: Worldview as a Concept*. 홍병룡 역. (2007). 『코끼리 이름 짓기』. 서울: IVP.
- Walsh, J. Brian. & Middleton, Richard. J.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IVP.
- \_\_\_\_\_ (1995).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김기현, 신광은 역. (2007).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 살림.
- Wolters, M. Albert. & Goheen, W. Michael. (1985). *Creation Regained 2nd Edition*. 양성만, 홍병룡 역. (2007).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국제경상관 415